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7. 26.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10



진로교육 현황조사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이정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 ①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법」 제6조에 근거한 법정 조사이자 국가승인통계(제112016호)로, 10여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② 지난 10년(2015~2025년) 학교 진로교육은 예산, 조직 등 운영 기반이 전 학교급에 걸쳐 보편적으로 갖추어졌고(초등 예산 편성률 73.3%→88.1%, 중·고 95% 안팎의 높은 수준 유지), 학생 선호가 가장 높은 진로체험도 코로나19 국면을 지나 3년 연속 확대됨(중학생 직업실무체험형 참여율 2015년 28.7%→2025년 46.3%).
- ③ 학생이 체감하는 만족도 역시 코로나19를 거치며 낮아진 뒤 최근 반등하였으며(고등학생 2023년 3.54점→2025년 3.75점), 희망 직업과 졸업 후 진로 경로도 한층 다양해짐(초등 1위 '교사'→'운동선수', 고교 '대학 진학' 희망 77.3%→64.9%).

학생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묻는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방식과 이를 지원하는 학교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이 글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¹⁾」가 국가승인통계로 자리 잡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변화를 ① 학교의 운영 기반, ② 진로체험, ③ 학생 체감 만족도, ④ 희망직업과 진로경로의 네 축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전국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학생을 해마다 추적하는 패널조사가 아니라 매년 새로 추출한 표본을 조사하는 반복 횡단면 조사다. 다만 핵심 문항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해 연도별 변화 경향을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학생의 종단적 변화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각 연도 학생과 학교의 응답 분포를 비교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조사 개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025년 기준)



학교 진로교육,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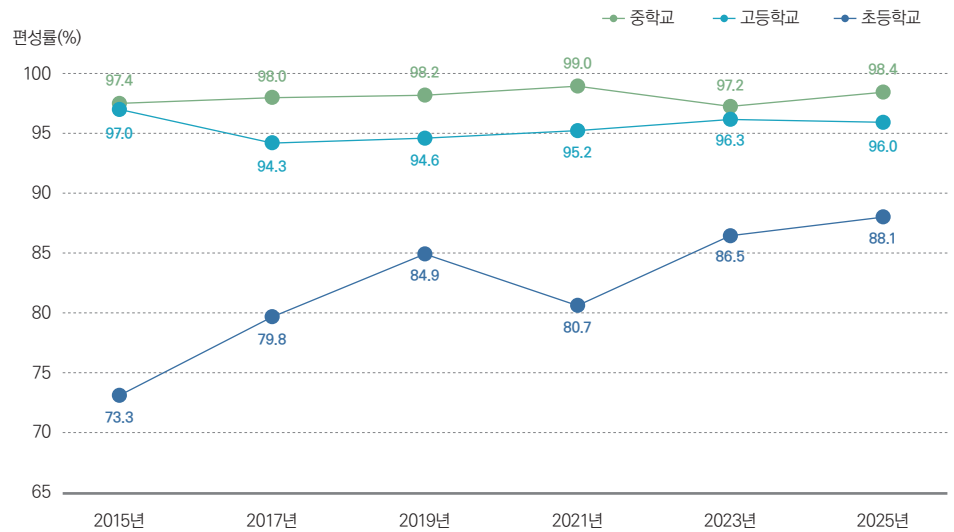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진로교육을 뒷받침하는 학교의 운영 기반이다. 학교가 진로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연간 운영계획 수립률과 예산 편성률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 학교는 초등학교 86.5%, 중학교 96.5%, 고등학교 97.0%로, 대부분의 학교가 진로교육을 연간 교육활동의 일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10년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표는 예산 편성률이다. 초등학교는 2015년 73.3%에서 2019년 84.9%를 거쳐 2025년 88.1%에 이르렀으며, 격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확인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난 10년간 95% 안팎을 유지해(2025년 중학교 98.4%, 고등학교 96.0%), 예산 편성이 일찍부터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보고서와 통계표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go.kr)의 '진로교육자료>진로교육 현황조사'와 교육부 누리집(moe.go.kr) 보도자료-공지사항에서,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와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 KOSIS(kosis.kr)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mdis.kostat.go.kr)에서 확인 및 내려받을 수 있다.

그림1 학교 진로교육 예산 편성률 격년 추이(2015~2025년)

(단위: %)



※ 2014년 초등학교 편성률은 62.6%였음. 중·고등학교는 조사 기간 동안 대체로 9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함.

이처럼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졌다는 것은, 진로교육이 일부 학교의 선택적 활동을 넘어,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 준다.

학생이 원하는 진로체험, 학교 현장에 확대되다

안정적으로 구축된 운영 기반 위에서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의 직접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학교 진로활동²⁾은 10년째 '진로체험'이다. 2025년 조사에서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으로 초등학생 83.7%, 중학생 87.4%, 고등학생 88.1%가 진로체험을 꼽아 모든 학교급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희망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은, 진로체험이 학생의 성장 단계와 함께 더 절실해지는 활동임을 보여 준다.

학교는 이 수요에 응답해 왔다. 2025년 진로체험 참여율은 중학생 82.7%, 고등학생 76.0%다. 특히 고등학생은 2021년 57.4%에서 18.6%p 높아지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체험 유형도 다양해져 중학생은 6개 유형³⁾ 중 5개에서 참여율 40%를 넘어섰다.

학생이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체험은 실제 일터를 방문하는 '현장직업체험형'과 모의 직업을 경험하는 '직업실무체험형'이다. 2025년 도움 정도는 현장직업체험형이 중학생 3.98점, 고등학생 4.08점으로 6개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직업실무체험형도 각각 3.88점,

2) 학교 진로활동은 초등학생의 경우 '수업 중 진로탐색하기', '진로심리검사하기', '진로체험하기', '진로상담하기', '창업가정신 배우기'의 5개 항목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와 직업」 수업,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7개 항목으로 조사한다.

3) 진로체험 유형은 강연형·대화형, 현장견학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의 6개이며,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4.01점으로 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 두 유형의 참여율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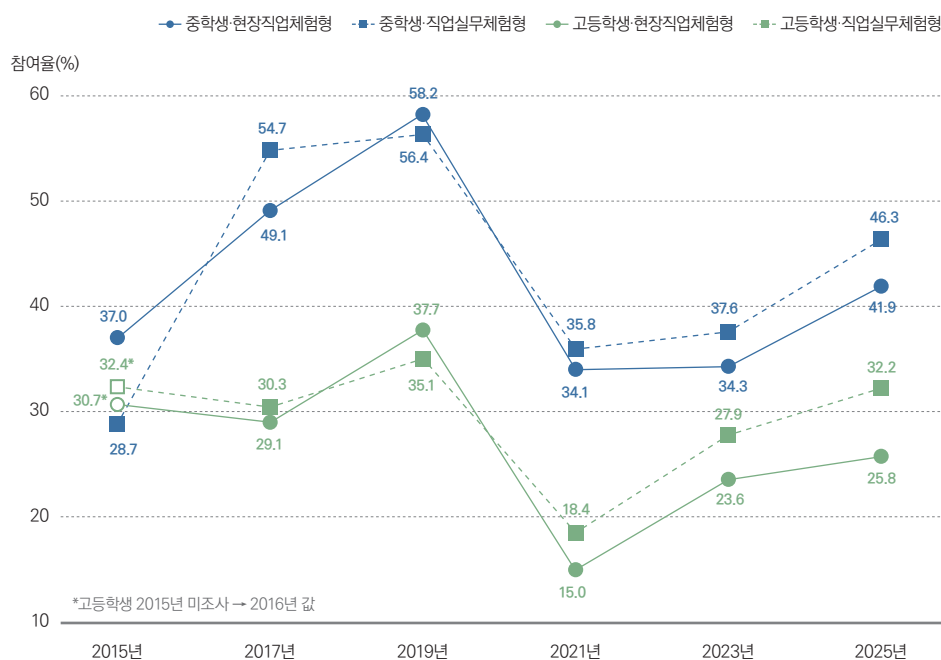
첫째,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참여가 빠르게 확대된 시기다. 중학생의 현장직업체험형 참여율은 37.0%에서 58.2%로, 직업실무체험형은 28.7%에서 56.4%로 높아졌다. 고등학생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0.7%에서 37.7%로, 32.4%에서 35.1%로 상승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이 이 시기의 확대를 뒷받침했다.

둘째,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대면 체험이 제한된 시기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체험의 특성상 참여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21년 현장직업체험형 참여율은 중학생 34.1%, 고등학생 15.0%에 그쳤다.

셋째, 2022년 이후는 체험이 다시 확대된 시기다. 2025년 중학생의 현장직업체험형 참여율은 41.9%, 직업실무체험형은 46.3%로 2015년보다 각각 4.9%p, 17.6%p 높아졌다. 고등학생의 직업실무체험형 참여율도 32.2%로 2016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진로체험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 직업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림 2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 변화(2015~2025년)

(단위: %)



※ 해당 유형에 “참여해 봤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가독성을 위해 격년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며, 고등학생은 2016년부터 표시함.

이 회복은 단순한 원상복귀에 그치지 않는다. 중학교에서는 진로체험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교육과정 안의 정규 활동으로 안착했다. 중학생의 진로체험 만족도가 7개 진로활동 중 가장 높은 3.89점을 기록한 것은, 확대된 체험의 질 또한 함께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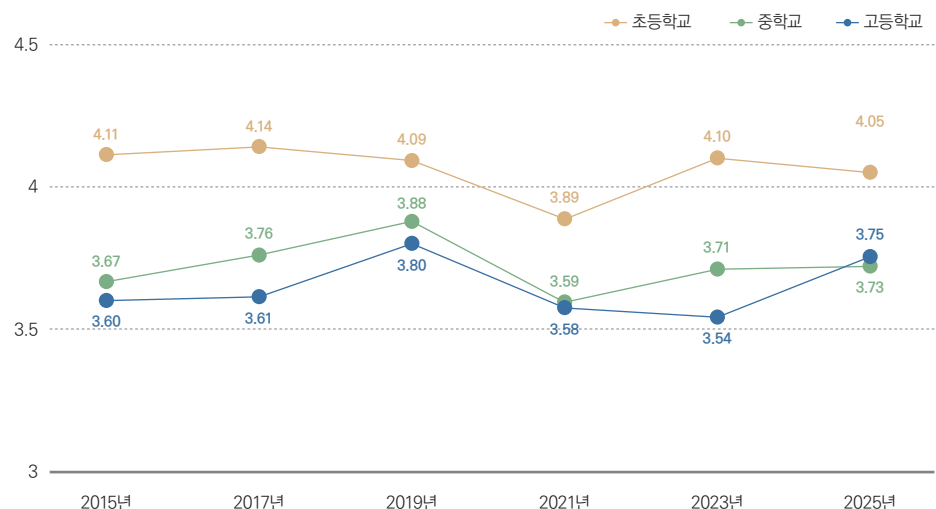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체험이 진학 설계와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2025년 학과체험형 참여율이 47.3%로 6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이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서 진로체험이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정보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지난 10년간 진로체험 정책은 학생의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체험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2026년 5월 「진로교육법」 개정으로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에 관계없이 질 높은 현장 중심 진로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를 넘어, 진로활동 만족도 다시 상승

다음으로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5점 만점)는 초등학생이 대체로 4.0점 이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대목은 고등학생으로, 2021년 3.58점에서 2023년 3.54점까지 낮아졌다가 2025년 3.75점으로 반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3.80점)에 근접한 수준을 회복했다. 중학생도 2021년 3.59점에서 2023년 3.71점, 2025년 3.73점으로 상승했다.

그림 3 학교급별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격년 추이(2015~2025년, 5점 만점)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진로활동이 양적으로 재개된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도 함께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최근 회복된 것은, 진로체험과 진로상담, 교과 연계 진로교육 등 학교의 다양한 노력이 학생의 요구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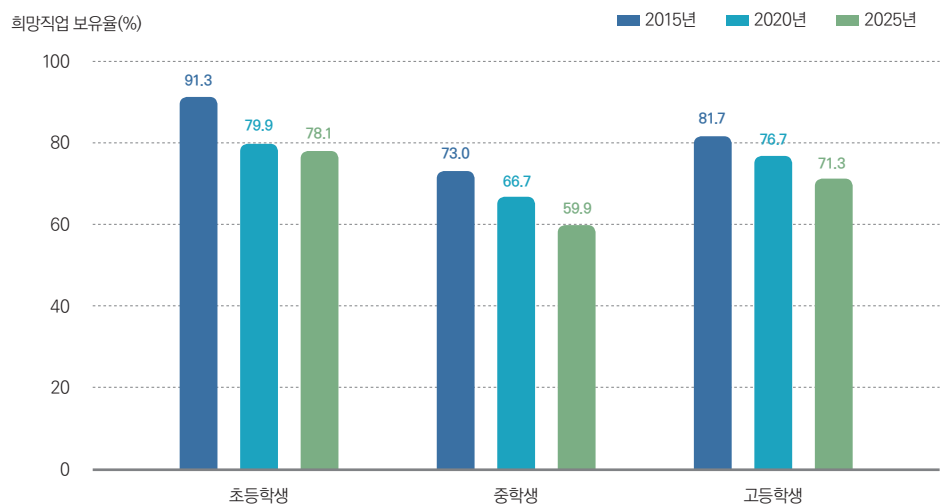
하나의 정답에서 다양한 선택으로, 학생 진로 경로의 확대

학교가 제공한 진로활동과 그에 대한 만족을 넘어, 학생들이 그리는 진로 자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장기간 축적된 조사자료를 통해 학생의 희망직업과 졸업 후 진로 경로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희망직업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5년 간격으로 완만히 낮아졌다. 초등학생은 2015년 91.3%에서 2025년 78.1%로 13.2%p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중학생도 73.0%에서 59.9%로 13.1%p 낮아져 초등학생과 비슷한 감소 폭을 보였다. 고등학생은 81.7%에서 71.3%로 10.4%p 감소해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작았다. 세 학교급 모두 10%p 이상 낮아진 가운데, 2025년 중학생의 희망직업 보유율은 60%를 밑돌아 세 학교급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에 관한 관심이 약해진 결과로 보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우리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특정 직업을 조기에 결정하도록 돕는 데서 나아가,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여러 진로활동 가운데 진로체험을 가장 선호했으며, 중학생의 진로체험 참여율도 82.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하나의 직업을 서둘러 정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희망직업 보유율의 감소는 진로교육의 중심이 '직업의 조기 결정'에서 '진로 탐색과 설계 역량의 함양'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희망직업 보유율 5년 간격 비교(2015년·2020년·2025년)

(단위: %)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구성도 10년 사이 달라졌다. 초등학생에서는 2015년 1위였던 '교사' 대신 '운동선수'가 2020년과 2025년 1위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크리에이터'가 3위에 올라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중학생에서는 '교사'가 10년간 1위를 유지한 가운데, 2025년에는 '운동선수'가 2위에 올랐다. 고등학생에서도 '교사'가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했으며, ‘간호사’가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특히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은 2024년 7위에서 2025년 3위로 상승하여 생명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최근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표1 학교급별 희망직업 상위 3위 변화(2015년·2020년·2025년)

학교급	2015년	2020년	2025년
초등학생	교사, 운동선수, 요리사	운동선수, 의사, 교사	운동선수, 의사, 크리에이터
중학생	교사, 경찰, 요리사	교사, 의사, 경찰관	교사, 운동선수, 의사
고등학생	교사, 기계공학 연구원, 경찰	교사, 간호사, 생명·자연과학자	교사, 간호사, 생명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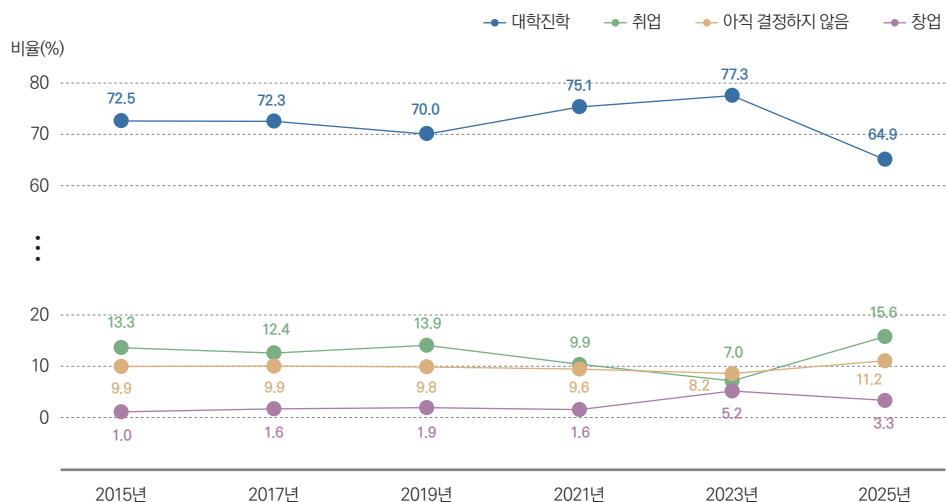
※ 순위는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대상, 상위 직업(중분류) 기준임. 직업명은 조사 연도별 원자료 표기를 그대로 사용함.

학생들의 희망직업뿐 아니라 졸업 후 경로 선택도 데이터로 확인된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은 2015년 72.5%에서 2023년 77.3%까지 등락 속에서도 70%대를 유지해 왔으나, 2024년 66.5%, 2025년 64.9%로 최근 2년 사이 뚜렷하게 낮아졌다. 반면 ‘취업’을 계획한 학생은 2023년 7.0%에서 2025년 15.6%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창업’은 2015년 1.0%에서 2025년 3.3%로 확대되었다. 취업과 창업을 합한 비율은 같은 기간 14.3%에서 18.9%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 주도형 진로·학업 설계를 강화해 온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 전환기에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과 학업 경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진학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진학, 취업, 창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비교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 목표에 맞는 경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림5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 추이(2015~2025년)

(단위: %)



학생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학교의 지원도 다양한 경로로 확대되었다. 고등학생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은 2021년 19.9%에서 2025년 30.0%로 높아졌고,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 참여율은 2025년 43.5%에 이르렀다⁴⁾. 학교의 진로지원이 대학 진학 중심에서 취업과 창업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여러 진로 경로를 실질적인 선택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데이터로 확인한 10년의 성과,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으로 이어가다

지난 10년간 학교 진로교육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학생의 직접 경험과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계획과 예산 편성은 높은 수준으로 정착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진로체험 참여와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도 최근 다시 회복되고 있다. 학생의 희망직업과 졸업 후 진로 경로 역시 과거보다 다양해져, 진로교육이 특정 직업을 조기에 결정하게 하는 데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도움을 크게 느끼는 현장 중심 진로체험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를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맞춤형 진로상담과 다양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급 전환기의 진로연계교육과 고교학점제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과목과 학업 경로를 설계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학교의 운영 여건과 학생의 경험 및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뒷받침해 왔다. 앞으로도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학교와 학생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학교와 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진로교육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폭넓게 탐색하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과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 참여율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각 연도 결과이며, 본 호에는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직업 위탁과정, 취업자료 제공, 선취업·후진학 설명회, 취업설명회, 전공별 현장실습 등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이정민 외. (2025). 2025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부.

※ 본고는 2015~2025년 각 연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보고서를 함께 검토 및 활용함.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